

시 넷 물

연 승 철

3교시 미술시간에 그린
졸졸졸 흘러가는 시냇물
쓱쓱-시냇가를 스케치 하고
파란 물감 듬뿍 칠해주면
시골 할아버지 할머니 댁
시냇물처럼
꿈틀 꿈틀 올갱이
이리저리 올챙이
살아 움직인다.

그림을 그리는 동안
여름방학 할머니 댁 시냇가에서
침병침병 물놀이 한다
색을 칠할 때마다 내 입가에
물감처럼 웃음이 번진다.

어느새 그림은 완성되고
맑은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
내 귓가에 울려 퍼지면
선생님의 칭찬소리 들려온다.